

'3퇴'와 평안

제 299기 2017년 9월 6일

2017년 8월 13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8,305만 명

미국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 거리축제에서 약 90명이 '3퇴'하다

[명혜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수많은 중국인이 운집했다. 차이나타운 거리축제는 매년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가장 성대한 행사 중 하나이다. 매번 거리축제에는 여러 민족이 참가한다. 올해 거리축제는 2017년 8월 26일과 27일에 오클랜드시 차이나타운에서 열렸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축제 방문객들에게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공법이며, 신체가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법이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는 도리를 알고 싶어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적지 않은 사람은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것은 “이 지구상 전대미문의 사악”이다. 거리축제에 왔다가 사람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다는 진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워했고, 잇달아 중공을 비난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해와 생체 장기 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 거리축제가 열린 이를 동안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박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에 6백여 명이 동참했다. 진상을 깨달은 노 화교 한 사람은 분노하며 말했다. “중공이 진정한 시교예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좋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박해했어요. 곧 무너질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내가 알



기로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중화민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는 또 ‘3퇴(퇴당, 퇴대, 퇴대)’ 성명을 했다. 이를 동안의 거리축제에서 약 90명이 ‘3퇴’ 성명을 했다.

프랑스의 여러 국회의원이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저지를 정부에 촉구하다

[명혜망] 서로 다른 프랑스 당파의 여러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은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인체 장기 강제적출이라는 중공의 폭행, 특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폭행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공의 이 야만적인 폭행을 확실히 저지하라고 프랑스 정부에 촉구했다.

녹색당원, “프랑스 정부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폭행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한다.”

올해 초, 현 프랑스 집권당 ‘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국회의원 에릭 알루제는 당시 프랑스 외교국제발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면 질의를 통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폭행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이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서면 질의는 프랑스 국회 관보에 발표되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에릭 알루제는 중국이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소수민족, 그리고 정치단체 인사를 대상으로 장기를 강제 적출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

은 장기이식 여행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유럽의회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해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공개 질책할 것을 회원국에 장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사형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정식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권이 발표한 이식 통계의 진실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며, 중공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덮어 감추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프랑스 정부는 마땅히 중공의 폭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2017년 3월 17일, 프랑스 공화당 국회의원 마리 크리스틴 달로즈 여사는 당시 프랑스 외교부 장관 장마르크 애로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공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비난하고, 프랑스 정부가 외교 수단을 동원해 중공으로 하여금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기를 희망했다.

사회당 전 의원,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를 겨냥한 것”

프랑스 사회당 전 국회의원 키아라 보우자니 라로시는 올해 4월, 당시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는 양심수와

기타 소수의 정치, 또는 민족 단체 인사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판매하는 중공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그녀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프랑스가 외교 수단을 동원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질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시장협회 명예회장, “대량의 믿을 만한 증언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행위를 증명한다.”

자크 펠리사르씨는 프랑스 공화당 전 국회의원이며, 프랑스 시장(市长)협회 명예회장이자 전 회장이다. 이 협회는 프랑스 전국 3만 9천여 시, 군 연합체의 94%를 포함한다. 그는 올해 2월, 당시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강제 적출해 판매하는 중공의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또 대량의 믿을 만한 독립적인 증언이 중공의 이 범죄행위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소수 정치, 또는 민족 집단 인사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중공의 행위를 저지하기를 희망했다.

강직한 노 간부가 흔쾌히 탈당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국민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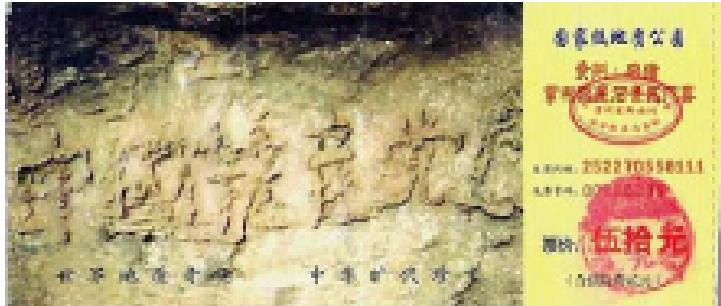
강직한 노 간부가 흔쾌히 탈당하다

[후베이 투고] 어느 날, 나의 앞쪽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년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몹시 힘들어 보였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형님, 중풍이에요?” 그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어서 그는 자신이 중풍에 걸려 수술을 하고, 이후에 뜻밖의 부상을 당한 일 등을 구구절절 말했다. 내가 따뜻하게 말했다. “형님, 성심으로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면 신체에도 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파룬궁이 이미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진 것과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니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격동되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알았어요. 나는 퇴직한 간부인데, 여러분보다 공산당을 더 잘 알아요. 그건 너무나 나빠요. 나는 그걸 증오해요. 내 손에는 아직도 그들이 발급한 문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무서워하지만, 나는 안 무서워요. 파룬궁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외국에 있는 친척이 나한테 말해 줬어요. 나는 (당에서) 탈퇴할게요. 나는 그게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있던 파룬궁 수련생 A가 기뻐하며 말했다. “저한테 지금 파룬궁 진상 책자 두 권이 있는데, 집에 가져가서 잘 보시면 당신에게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는 A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좋아요. 내 마음 속에서 감격이 우러나와요. 고맙습니다.” A가 말했다. “저희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저희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인 것을 저희 사부님께서 보시고 당신을 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중개 역할을 해야죠!”

국보대대장이 탈당하고 공을 세워 과오를 씻다

[대륙 투고] 현지 국보대대장이 장쩌민 시악집단의 조종을 받아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여러 차례 가담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여러 차례 그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는 마침내 진상을 깨닫고 다시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암암리에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했다.

한번은 파룬궁 수련생 A가 국보대대장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 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

파룬궁 진상을 알려 여러 명을 '3퇴'시켰다. 머리를 돌리니 국보대장이 옆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A는 주동적으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당신도 여기 계셨네요.” 다른 사람이 국보대대장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아세요?” 그는 아주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제가 체포했었어요.” A가 말했다. “모모님, 당신도 사람을 해치는 그당에서 탈퇴하시죠?” 국보대대장이 말했다. “저를 탈퇴시켜 주세요. 저희 아들도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그는 또 A에게 물었다. “과거에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건 어떻게 하죠?” 파룬궁 수련생이 알려 주었다. “좋은 일을 그만큼 해서 갚으세요.”

한번은 국보대대장이 경찰을 이끌고 파룬궁 수련생의 집 문 앞에 와서 집을 수색하겠다고 말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은 물건을 치우세요.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나중에 파룬궁 수련생이 그를 찾아가 왜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갔느냐고 물었다. 그는 위에서 내린 명령이라며 휴대폰 감청에 주의하라고 암시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를 물었다. “모모(파룬궁 수련생)가 박해받아 사망했는데, 왜 내가 그랬다고 말하나요?”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명혜망 보도는 전혀 당신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러더냐고 물었다. 그는 상급 부문에서 자신에게 쪽지를 주었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그에게 그건 모함이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당이 일관적으로 쓰는 수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마침내 알아차리고 말했다. “모두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다면 현재 사회상의 그런 사기를 치는 등의 불량한 행위가 없어질 겁니다.”

기름 파는 남자가 '3퇴'하여 복을 받고, 촌 지부서기가 탈당하다

[허베이 투고] 탕산시 차오페이이뎬구에 기름을 파는 40여 세 된 남자가 있는데, 파룬궁 진상을 알고 '3퇴(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를 선택한 후 교통사고를 두 번 당하고도 다치지 않자 존지부서기와 친구들도 서둘러 '3퇴'를 요청했다.

차오페이이뎬 연해지역은 새로 건설된 공업단지, 제강공장, 부두가 많고, 매일 밤낮으로 강철과 광재 등을 나르는 대형 차량이 끊임없이 왕래하는 곳이다. 기름 파는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며 기름을 판다. 길 위에는 폭주하는 대형 차량이 지나다녀 몹시 위험하다. 한번은 그가 오토바이에 기름을싣고 시장에 가다가 길 위에서 큰 차와 맞닥뜨렸는데, 피할 수가 없었고, 눈앞에서 커다란 차량의 바퀴가 자신을 덮치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밖으로 밀어내듯이 그와 오토바이가 차량의 바퀴와 멀리 떨어진 길

옆으로 밀려났고, 그는 재난을 피했다.

또 한 번은 길에서 큰 차가 그를 쳤고, 바퀴가 그의 몸 위로 굴러 지나갔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그는 기사에게 말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살살 움직여서 일어날 수 있는지 볼게요.” 한번 움직이니 정말 일어섰다. 기사가 그에게 천 위안을 주려 하자 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무거운 대형 차량이 몸 위로 굴러 지나가도 자신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잘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신령의 보호를 받은 것인데, 또 돈을 받아서 무엇하겠는가 생각했다. 그러나 기사는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는 할 수 없이 상징적으로 백 위안짜리 지폐 한 묶음 속에서 한 장을 뽑으면서 자신이 집에 돌아가 소염약을 조금 사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가 집에 돌아간 후 사람들은 그가 큰

차에 깔렸다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이 모두 그를 보러 왔다. 모두들 그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잘 있으니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3퇴'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으러 온 큰 난을 피했고, 이렇게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정말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 기적을 목격한 친구들은 기름 파는 남자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찾으면 자신들도 '3퇴'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 무리의 서기도 그 일을 듣고 파룬궁 수련생을 찾으면 자신도 '3퇴'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기름 파는 남자가 그 사고로 놀라고 피부에 찰과상을 입어 집에서 20여 일 휴식을 하자 안달이 난 서기가 그에게 왜 나가서 '3퇴'를 처리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나중에 기름 파는 남자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나 친구들의 '3퇴' 명단을 전하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